

2018년 12월 19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S&P500 3 분기 자사주 매입 증가(yoy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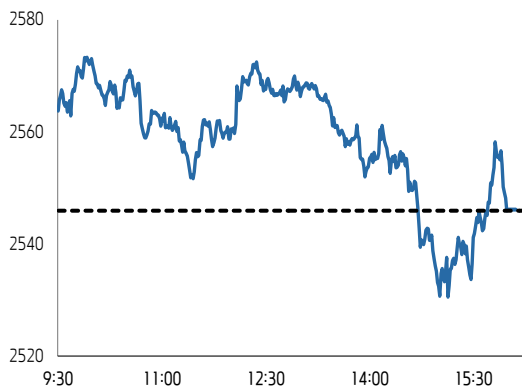
대형 기술주 상승 요인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 특히 3 분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 반면,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공급 증가 여파로 급락하자 매물 출회. 또한 트럼프 전 보좌관인 폴린 에 대해 판사가 범죄가 심각하다고 선고를 연기하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 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장중 한 때 하락하는 등 변동성 지속(다우 +0.35%, 나스닥 +0.45%, S&P500 +0.01%, 러셀 2000 -0.07%)

대형 기술주는 자사주 매입 증가 및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상승. 다우존스는 S&P500 기업들의 3 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가 2,038 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7% 증가 했다고 발표. 2 분기 대비로도 6.9% 증가한 수치. 이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결과로 상위 20% 기업이 전체 매입 중 54.3%나 차지하는 등 쓸림 현상은 지속. 특히 월컴(+1.37%)이 211 억 달러, 애플(+1.30%)이 194 억 달러, 오라클(+0.26%)이 103 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기술주가 823 억달러를 기록한 점이 특징. 한편,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36.2% 증가한 3,195 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법인세 인하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소식이 기술주 상승을 견인.

더불어 대형 기술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아마존(+2.01%)은 12 월 28 일 '제 3 회 디지털 데이'를 앞두고 많은 할인 행사와 온라인 약품 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 페이스북(+2.48%)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힘입어 상승. 시장은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이 61.2 억 달러로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짐. 한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14 일(금) S&P500 4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특히 IT 는 전년 대비 7.0%,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전년대비 13.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다만,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 이후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할 듯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62.11	-0.43	홍콩恒生	25,814.25	-1.05
KOSDAQ	659.67	-0.34	영국	6,701.59	-1.06
DOW	23,675.64	+0.35	독일	10,740.89	-0.29
NASDAQ	6,783.91	+0.45	프랑스	4,754.08	-0.95
S&P 500	2,546.16	+0.01	스페인	8,700.80	-1.27
상하이종합	2,576.65	-0.82	그리스	625.31	-1.06
일본	21,115.45	-1.82	이탈리아	18,644.85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아마존(+2.01%)은 디지털 데이터를 앞두고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했다. 페이스북(+2.48%)도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 급증 기대감이 부각돼 상승 했다. 알파벳(+1.73%)과 넷플릭스(+3.10%) 등 FANG 기업들도 동반 상승 했다. 퀄컴(+1.37%)과 애플(+1.30%)은 자사주 매입 증가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애플은 퀄컴과의 특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돼 상승이 일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잉(+3.77%)은 배당금을 20% 인상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로소프트(+0.68%)은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반면, 엑손모빌(-2.76%), 셰브론(-2.41%), 코노코필립스(-1.92%)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0.43%)은 구겐하임이 매수와 86달러 목표 주가를 바탕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바이오젠 급락 여파로 하락 마감 했다. 바이오젠(-5.86%)은 목표주가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 했다. 바이오젠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 했으며 이 여파로 바이오 업종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대부분 하락 했다. 유나이티드헬스(-1.98%), 휴마나(-3.69%) 등은 아마존의 온라인 약품 판매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87%	대형 가치주 ETF	-0.57%
에너지섹터 ETF	-2.00%	중형 가치주 ETF	-0.24%
소매업체 ETF	+0.36%	소형 가치주 ETF	-0.31%
금융섹터 ETF	-0.37%	배당주 ETF	-0.74%
기술섹터 ETF	+0.79%	변동성 ETF	+0.4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21%	대형 성장주 ETF	+0.42%
인터넷업체 ETF	+1.26%	중형 성장주 ETF	+0.31%
리츠업체 ETF	+0.99%	소형 성장주 ETF	+0.04%
주택건설업체 ETF	+1.38%	신흥국 고배당 ETF	+0.10%
바이오섹터 ETF	-1.9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44%
헬스케어 ETF	-0.87%	하이일드 ETF	-0.29%
곡물 ETF	0.00%	물가연동채 ETF	+0.26%
반도체 ETF	+1.20%	Long/short ETF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6.96	-2.35%	-5.80%	-11.73%
소재	315.65	+0.56%	-2.31%	-8.55%
산업재	554.65	+0.58%	-2.30%	-8.13%
경기소비재	793.03	+1.03%	-3.17%	-5.38%
필수소비재	536.55	-1.17%	-4.78%	-6.53%
헬스케어	997.04	-0.80%	-5.28%	-6.25%
금융	394.90	-0.48%	-2.60%	-10.98%
IT	1,113.88	+0.86%	-2.87%	-6.69%
커뮤니케이션	142.55	+0.61%	-1.68%	-3.67%
유틸리티	275.15	-0.64%	-3.85%	-0.69%
부동산	199.88	+0.95%	-4.27%	-3.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전기전자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41% MSCI 신흥지수는 0.6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140 계약)에도 불구하고 0.05pt 하락한 262.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5.2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자사주 매입 증가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정치권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장중 한 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21 일)을 앞두고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은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CEO 가 “전년 대비 두자릿수 매출 성장과 탄탄한 비즈니스가 이어져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가는 시간외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 최근 몇 주간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분쟁과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양측은 3 월 이전에 협약을 문서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 월에 첫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 산업안전국의 신기술 수출 제한과 관련된 의견 청취 마감일(19 일)임을 감안 관련 보고서 내용에 따라 중국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강세를 보일 여지가 높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반등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지표 개선

11 월 미국 신규 주택착공건수는 전월(121.7 만건) 보다 증가한 125.6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향후 추이를 알 수 있는 허가 건수 또한 전월(126.5 만건) 보다 증가한 132.8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부진했던 주택지표를 뒤로하고 양호한 결과가 나오며 주택시장 위축 우려감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전월(102.0)이나 시장 전망치(101.8)을 하회한 101.0 으로 발표되었다.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OPEC 과 비 OPEC 국가들의 감산 이행을 앞두고 러시아가 증산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러시아는 12 월 2 주 동안 원유 생산 규모가 전월 같은 기간 보다 증가한 하루 1,142 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2019 년 1 월부터 시작 되는 감산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매물을 내놓았다. 한편, 21 일(금)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등 수급적인 영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 또한 있다. 향후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는 FOMC 를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양호한 주택지표를 비롯해 달러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장 후반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도 부담이었다. 다만, 연준이 FOMC 를 통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약세폭은 제한 되었다. 한편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노르웨이 크로네, 브라질 헤알화 등 일부 상품 관련 상품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FOMC 를 앞두고 하락했다. 주택지표가 개선되고 장중 미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FOMC 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주식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점 또한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FOMC 를 기다리며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3%, 철근도 0.6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6.24	-7.30	-10.47	Dollar Index	97.052	-0.05	-0.35
브렌트유	56.26	-5.62	-6.54	EUR/USD	1.1365	+0.15	+0.42
금	1,253.60	+0.14	+0.51	USD/JPY	112.52	-0.27	-0.76
은	14.701	-0.39	+0.50	GBP/USD	1.2642	+0.14	+1.24
알루미늄	1,925.00	-0.88	-0.72	USD/CHF	0.9927	-0.02	-0.06
전기동	5,970.00	-2.50	-3.21	AUD/USD	0.7185	+0.08	-0.29
아연	2,520.00	-0.75	-2.70	USD/CAD	1.3462	+0.41	+0.54
옥수수	385.50	+0.39	+0.19	USD/BRL	3.9092	+0.18	+0.24
밀	532.75	-0.47	+2.26	USD/CNH	6.8902	-0.16	-0.23
대두	920.75	+0.30	-0.81	USD/KRW	1129.60	-0.15	-0.04
커피	99.40	-0.70	-2.88	USD/KRW NDF1M	1125.24	-0.35	-0.2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19	-3.78	-5.98	스페인	1.375	-2.20	-5.90
한국	1.970	-3.20	-1.30	포르투갈	1.630	-1.50	-12.20
일본	0.026	-1.50	-2.40	그리스	4.362	+3.80	+11.70
독일	0.244	-1.20	+1.20	이탈리아	2.935	-2.20	-18.40